

학교탐방

거진종합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50% 넘는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배려와 나눔을, 교사는 사랑과 실천을 ... 학생과 교사가 가족같이 지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학생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학부모의 바람이자 모든 교사의 꿈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교가 거진종합고등학교이다.



김영국 교장

거진종합고등학교는 1964년 거진실업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74년 12월 거진공업고등학교로 학칙이 변경되었다. 2000년 3월,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통합되어 거진종합고등학교로 학칙 및 교명이 변경되었다.

2010년 3월 김영국 교장이 부임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5,794명이 졸업했다. 특히 올해는 7명의 학생이 대기업에 취업하였으며 1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등 5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특성화고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거진종합고등학교는 학생에게는 배려와 나눔을, 교사는 사랑과 실천을, 교직원들은 봉사과 친절을,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주는 학교를 표방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뮤지컬과 뮤직드라마 제작을 통해 인성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거종제)와, 제2회 음악제가 준비되어있어 학생들의 열의가 높다.

거진종고에 입학하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미리 동아리에 참가하여 활동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동아리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보컬 동아리 '고구려'와 b-boy 동아리 'CDC'가 그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로 관악 동아리를 들 수 있다. 30명으로 구성된 관악부는 각종 관악기와 타악기를 접목시켜 학교 행사나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가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배운다.

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 외에도 방과 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수능 대비나 자격증 대비, 그리고 소질 개발을 위한 특기적성



거진종합고등학교 전경.

반을 운영하며 특히 올해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거진종고가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가족 같다는 것이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은 물론 가정사를 알고 있으며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학교가 학생을 억압하고 규격화된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즐겁고

의지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배움이 즐거우며 지역 사회가 풍요롭다면 더 바랄 게 있을까?

김영국 교장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과 사회가 협심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

고성팔경(高城八景)⑤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Ⅲ

해마다 수학여행철이면 전국에서 방문한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지난 1984년 조성된 이후 거의 20년쯤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의 안보관광지인 고성 통일전망대는 분단국가로서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하지만 통일전망대 교회와 통일미륵대불, 성모마리아상 등 3대 종교 시설물이 평화통일 기원 면모를 갖춘 명소로 연간 수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통일 기원 범종= 전망대 좌측에 위치한 범종은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불교진흥원과 신흥사 낙산사 신도들의 성금으로 1983년 10월 7일부터 동년 12월 22일까지 제작비 2천만 원을 들여 높이 1.87cm, 둘레 1.25cm, 무게 1,875kg 이며 최대 타종거리는 4km의 규모로 주조되었다.

전진 십자 첩탐과 전망대 교회= 통일 기원 범종 좌측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북녘 땅에 사랑과 평화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에 의해 1983년 12월 1일 시작으로 동년 12월 22일 세워졌다. 총공사비가 1천 1백만 원이 소요돼 높이 39m(구약 39권을 상징), 전등줄 27줄(신약 27권 상징), 전등수 1,500개(신·구약 성경 총장수) 의미가 내포하고 있으며 매년 성탄절이면 1,500개의 전등에 불을 밝히는 기념점등식 행사가 개최된다.

첩탐 좌측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위치한 통일전망대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가진 십자탑 점등 행사시 특별히 기도할 공간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산 온천제일교회 측의 배려로 건립되어 2004년 10월 15일 헌당식을 가졌다.

울곡부대에 따르면 통일전망대 교회는 군 교회로 등록해 통일전망대를 찾는 국민들이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에 인근에 있는 장병들이 집회를 가진다.

성모 마리아상= 통일 기원 미륵불상 우측으로 자리한 성모마리아상은 북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빌어 주고 있으면 한국 천주교에서 1985년 10월 15일 시작으로 1986년 6월11일 사업비 1천 6백만 원 들여 높이가 10.5m이며 13.6평의 면적에 건립하였다.

통일 기원 미륵불상= 전망대 우측 언덕에 위치한 미륵불상은 부처님의 자비

통일을 염원하는 종교 시설물



사진 왼쪽부터 통일전망대교회, 성모마리아상, 통일기원 미륵불상.

를 북녘 땅에 전파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국민애를 기원하는 등의 뜻이 담겨져 있다. 1987년 5월 1일 군부대에서 발원하고 신흥사에서 후원하여 규모가 높고 13.6m, 기단은 화강석, 불상의 재질은 백 시멘트이며 1987년 5월 착공하여 1987년 10월 완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2010. 6.15) 언론사에 따르면 종교시설물들이 노후하자 육군 8군단과 22보병사단은 고성군과 재향군인회 등의 후원으로 통일전망대에 설치돼 종교적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통일전망대 교회와 통일미륵대불, 성모마리아상 등 3대 종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콘크리트 계

단을 친환경 원목으로 교체하고, 어린이들과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 높이 조정과 장애인 길을 설치하였다. 또 종교의식을 마친 방문객들이 관망대에 다시 올라가지 않아도 휴식을 하면서 해금강과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종교시설 주변 조경작업과 벤치, 휴식장소를 설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